

# 주간 테러동향

## Weekly Terrorism Trends

'22. 03. 11(금)

### 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#### 유럽

- **英 극우세력, 피트니스 채팅방 이용 극우주의 확산 도모**
  - 3.6 英 가디언은 일부 극우단체들이 온라인 피트니스 채팅방을 통해 운동정보 공유 등을 미끼로 회원 모집 후 비밀 채팅방으로 초대, 자신들의 사상을 주입하며 세력 확장을 도모 중이라고 보도
    - \* 회원들은 육체적 단련을 통해 백인이 피해를 당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믿으며, 나치를 추종하고 실제 폭력행위 준비를 암시하는 글을 게시

#### 미주

- **美 대법원, 보스턴 마라톤 테러범 사형 확정**
  - 3.5 美 연방대법원은 지난 '13년 260여명의 사상자를 초래한 보스턴 마라톤 폭탄 테러 참사\*의 주범인 「조하르 차르나예프」 (남, 28세)에게 사건 발생 9년 만에 사형을 선고
    - \* '13.4.15 보스턴 마라톤 결승선에서 직접 제조한 입력술 폭탄을 터트려 3명 사망·200여명 부상
    - \*\* 「바이든」 행정부가 사형제 폐지를 지향하고 있어 실제 사형이 집행될지는 미지수
- **콜롬비아 민족해방군(ELN)\*, 총선 앞두고 휴전 선언**
  - 3.5 콜롬비아 민족해방군(ELN)은 오는 13일 총선을 전후해 10일부터 15일까지 6일간의 휴전을 선언했으며, 이는 원활한 선거 진행과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 여건을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부연
    - \* 콜롬비아내 공산주의 국가 건설을 목표로 결성('64), 테러단체 지정 미국('97.10), EU('04.4)
    - \*\* 콜롬비아 국방장관은 “테러리스트들로부터 나오는 소식을 믿지 않는다”며 진정성 의심

## 아 · 태평양

- 법원, '이슬람 극단주의 단체' 현금 우즈벡인 징역 10월 선고
  - 3.2 대구지법은 '20.4~5월간 대구의 한 이슬람사원에서 만난 국제테러 단체 '알 누스라 전선'\* 연계자에게 45만원을 송금해 「테러방지법」을 위반한 우즈벡인(28세)에게 징역 10월 및 추징금 45만원 선고
    - \* 시리아 북부에 근거를 둔 알카에다 연계 테러단체(UN·美 등이 테러단체 지정)
- 검찰, 외국 테러조직 대상 자금 송금 불법체류자 구속
  - 3.3 언론은 대전지검이 국내에서 외국 테러조직에 수백만원을 송금한 불법체류자를 「테러자금금지법」\* 위반혐의로 구속(2.28)했으며, 同人은 조직원들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접촉하고 차명 계좌를 이용했다고 보도
    - \* 테러를 감행하려 자금이나 재산을 모으는 행위 등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규정
- UN 特使, 국제사회에 아프간 탈레반 정부와 협의 촉구
  - 3.3 「데보라 리용」 UN 아프간 특사는 탈레반 정부가 “향후 어떠한 나라에도 위협이 되지 않고 모든 국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할 것을 천명했다”고 전하며 국제사회가 現 아프간 정부와 협의할 것을 촉구
    - \* 한편, 아프간 탈레반 정부는 국제사회가 자신들을 오해하고 있으며 그동안의 노력들을 폄하하고 있다고 주장
- 파키스탄, 시아파 모스크 겨냥 자살 폭탄테러로 260여명 사상
  - 3.5 언론은 지난 4일 파키스탄 북서부 페샤와르의 코차 리살다르 지역 시아파 모스크에서 금요일예배 중 발생한 자살폭탄테러\*로 63명이 사망하고 200명 이상이 부상당했다고 보도
    - \* ISIS-K(호라산지부)는 성명을 통해 同사건의 배후를 자처

## 아프리카

- 佛, 알카에다 北아프리카지부 수장 사살
  - 3.7 프랑스軍은 지난 '19년부터 아프리카 말리 팀북투를 중심으로 활동하며 알카에다 北아프리카지부(AQIM)의 물자, 자금 지원 등을 담당했던 수장 「야히야 주아디」를 사살했다고 발표
    - \* 프랑스는 그동안 사하라 사막 주변 사헬 지대를 테러리스트의 온상으로 판단, '13년부터 말리를 거점으로 대테러 군사작전(작전명 : 바르칸 작전)을 전개

아프간, 소수 민족 출신 시아파 지도자 추모식 테러 발생

- '20.3.6 아프간 수도 카불市에서 개최된 '하자라'族 출신 시아파 지도자 「압둘 알리 마자리」 (Abdul Ali Mazari) 추모식\*에 무장괴한들이 난입, 로켓포를 발사하고 총기를 무차별 난사하여 최소 32명 사망, 81명 부상
  - \* 탈레반에 의해 구금 中 사망('95년)한 同名의 추모식은 아프간 소수민족·종파 탄압 상황의 상징성을 지니는바, '19년 관련 행사 時에도 ISIS의 테러로 11명 사망
- 同 추모식에는 '19.9월 대선 2위의 유력 정치인 「압둘라 압둘라」 (Abdullah Abullah) 최고 행정관도 참석했으나 현장을 무사히 탈출
- 사건 직후, ISIS는 자체 선전매체 아마크 통신을 통해 공격 배후를 자처했으나, 탈레반의 경우는 '자신들은 개입하지 않았다'고 공식 발표
- 한편, 지난 '16년 「압둘 알리 마자리」에게 '국민 통합의 순교자'(Martyr of National Unity) 칭호를 부여했던 「아슈라프 가니」 아프간 대통령은 同 사태를 '반인륜적 범죄이자 자국의 통합을 저해한 행위'라며 강력 비판
- 이런 가운데,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미국과 탈레반의 역사적 '평화 합의' 타결('20.2.29) 이후 조성된 화해 분위기를 해친 '최악의 테러'로 평가

< ISIS(이라크·시리아 이슬람국가) >

- (목 표) 시리아·이라크 등 중동 전역을 통괄하는 원리주의 이슬람 神政국가 건설 ('04. 4월 결성)
  - \* 테러단체 지정 : UN('04.10월), 미국('04.12월), 캐나다('12.8월)
- (조직규모) 약 14,000~18,000명 추정('19.8월, 美 국방부) \* 전성기 최대 약 7만명
- (연계세력) ISIS-호라산·西아프리카·시나이 지부 등 20여개
- (활동지역) 이라크 서북부 및 시리아 동부 지역
- (활동수법) '19.3월 시리아內 점령지 상실 이후, 게릴라식 테러를 지속 중인 가운데 선전매체 등을 통해 테러 선동
- (주요테러) ① '15.11월 프랑스 파리 공연장·축구장 등 동시다발테러(사망 130, 부상 350)  
 ② '17.12월 이집트 수피교 사원 폭탄·총격테러(사망 305, 부상 128)  
 ③ '19.4월 스리랑카에서 ISIS 추종단체의 연쇄테러(사망 259, 부상 500)